



## Cover Story

표지디자인 | 장정현기자  
목차디자인 | 김운정기자

30여년에 걸친 구본창의 작업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전시가 3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개인 컬렉션을 소재로 찍은 사진작품이 차용 공개되며 기예 박물관의 한국 탈 컬렉션을 찍은 사진도 볼 수 있다. © MGM 07, 2009, Archival pigment print, 62x80cm, Courtesy of Koo Bohnchang and Kukje Gallery

## 058 In Focus

소외된 사회의 얼굴을 벗기다, 필립 바쟁·생자면

필립 바쟁은 신생아, 정신병자, 수감자 등 사회의 외면과 소외 속에 사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그는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의사처럼 사진을 통해 사회의 병든 곳을 어루만진다.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별거벗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 070 WORKS

물과 숲에서 신화의 근원지 연출하는 엘리즈 기요·하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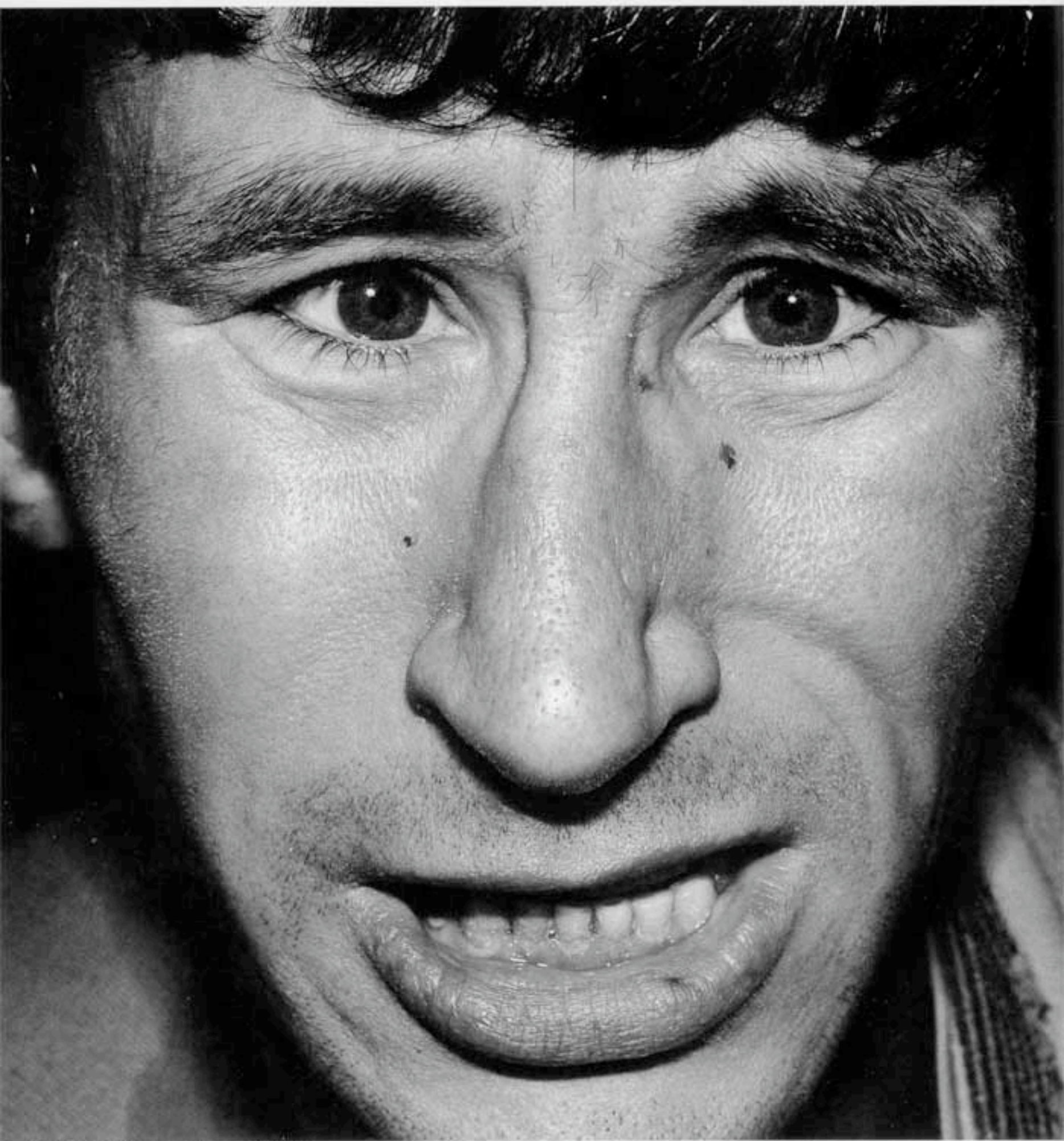
엘리즈 기요의 신화 시리즈는 여러 회화와 문화작품에 나오는 주인공과 이콘에서 영감을 받았다. 물과 숲을 등장시켜 신화의 근원지를 연출한 사진은 작가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유년시절의 기억을 반영하여 자신만의 신화를 재창조한다.

## 128 Special Photo

지진 이후 아이티 속으로·전해리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포토저널리스트 전해리는 지진 이후 아이티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이티에서 황량한 빈민촌 풍경과 굴곡 많은 역사를 버티온 아이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포토저널리스트로서의 고민과 딜레마를 토로한다.





Faces (aléris). 83 photographs, 27x27cm, 1990-1993



## 소외된 사회의 얼굴을 벗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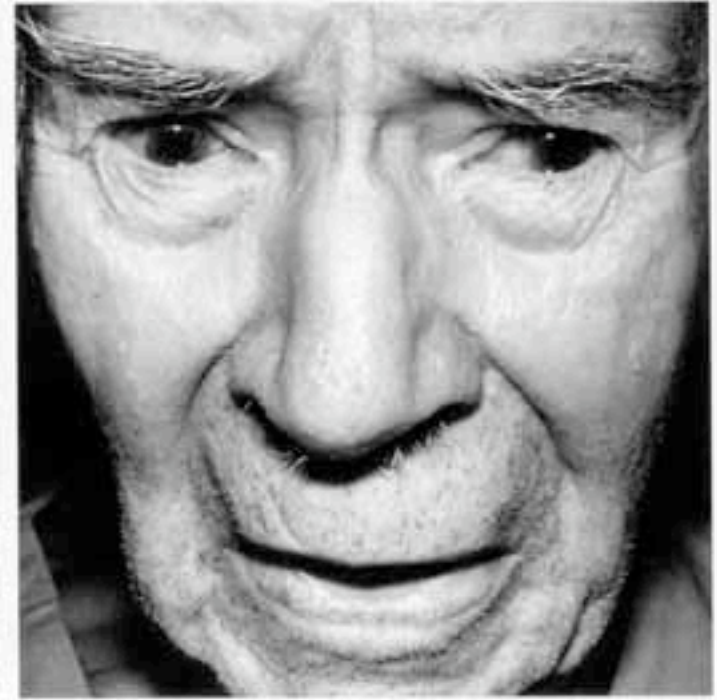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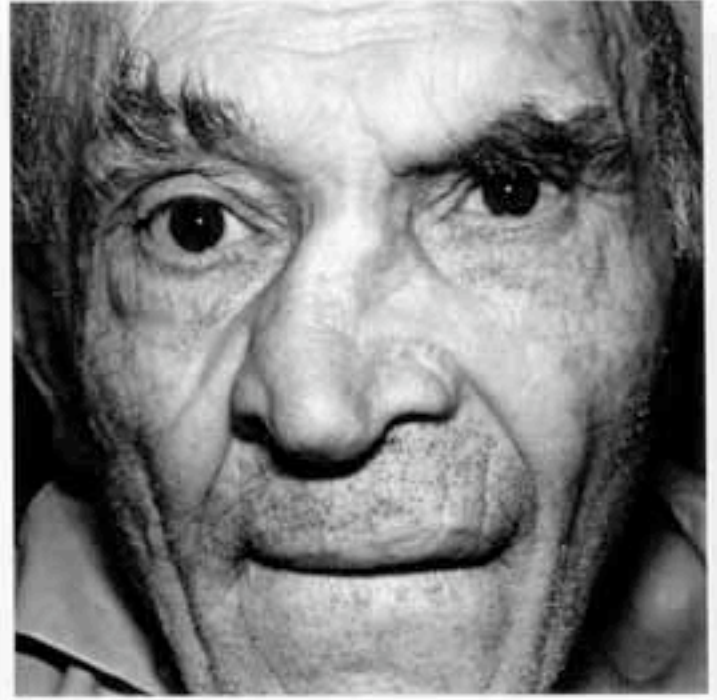
노인과 신생아, 수감자 얼굴 찍은 필립 바쟁

Philippe Bazin

필립 바쟁의 사진 속 인간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발거벗은 현실을 보여준다. 아픈 이를 돌보며 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숙명처럼 그의 사진 곳곳에는 사회의 병든 곳을 지적하며 어부만지는 휴머니스트의 인간 사랑이 느껴진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촬영한 작품인 'Faces'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사진가 필립 바쟁(Philippe Bazin, 1954~)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다. 의학 공부를 마친 뒤 시골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중 그는 죽음을 앞두고 투병하는 노인들에게서 죽음 이후의 사라짐과 잊혀짐에 관한 강한 충격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기를 들었고, 죽어가는 노인의 사진은 그에게 또 다른 자아와 함께 사진가라는 새 삶을 주었다.

병든 노인들의 얼굴을 촬영한 'Faces' (Vieillards)라는 제목의 첫 연작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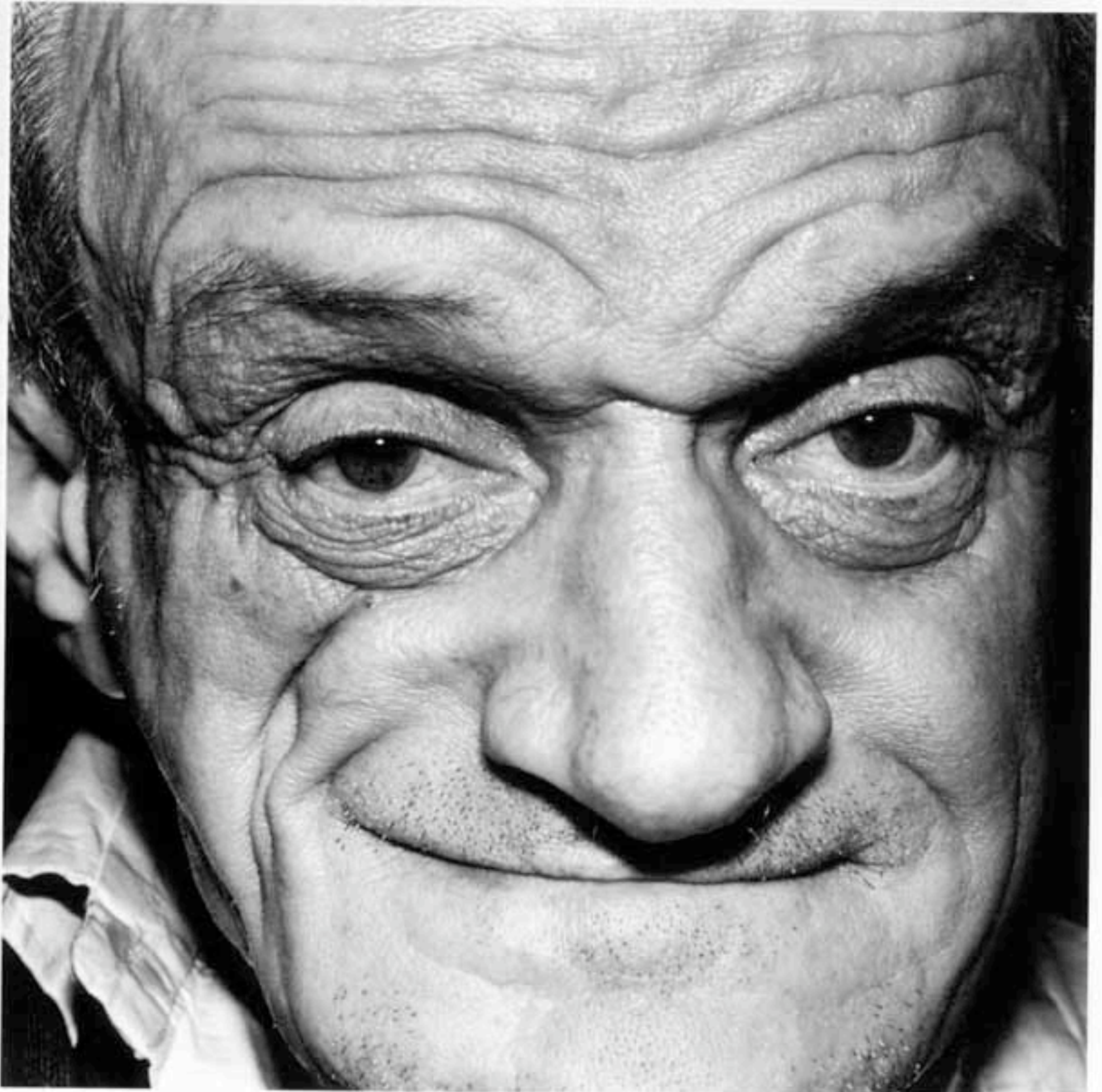


리고 'Faces' 시리즈 다음에는 신생아와 사회단체에서 보호받고 있는 유아, 정신병자, 수감자, 사춘기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혹은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진작업을 해왔다. 얼굴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피카소 그림의 주인공들까지 다룰 정도다. 약 10년 전부터는 얼굴에서 공간으로, 흑백 필름사진에서 컬러 필름사진으로 변했으며, 사진뿐 아니라 비디오 작업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 사진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시골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했다. 내가 있던 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노인들이었다. 경험이 거의 없는 인턴의사였던 나는 매일 반복되는 죽음과 죽음에 대해 싸우는 노인들의 고통을 보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2주 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의 정보를 조사하다가 서류에 그 분의 증명사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

고 그 분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돌보는 환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병실을 다니며 노인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암실 현상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찍었던 10여개의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면서 계속 이 작업을 해야겠다는 갈급함을 느꼈다. 의사로 일하며 계속 노인들을 찍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또 다른 나를 찾게 했다. 사진 찍는 일에 열정적으로 사로잡힌 나는 곧 의사직을 내놓았다. 이때의 작업이 첫 작품인 'Faces' (Viellards, 1985~1986)였다. 늦은 나이였지만 당시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던 아를르 국립사진학교에 원서를 넣어 합격했고, 사진기술과 미학을 접하며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였다.



Faces(viellards). 34 photographs. 27x27cm, 1985~1986



Accouchement. 12 photographies, 34x34cm, 1988

노인 작업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얼굴 시리즈를 작업했다. 신생아, 유아 혹은 아이를 낳고 있는 산모 등을 찍었는데,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대상을 촬영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대부분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 똑바로 누워 있지 못하는 대상들도 카메라에 플래시를 장착해 그대로 촬영했다. 비록 누워있지만 나는 그들이 두 발을 지탱하며 서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다. 이처럼 사진이 주는 시각적인 일루전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만약 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더라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작업에서 보이는 상황은 함께 생활하며 겪은 드라마틱한 삶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암울한 병실, 코를 찌르는 냄새들,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 등 사진에서는 현실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관찰자의 눈이 아니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한 자의 눈이 아니면 전달되기가 어려운 작업인 것 같다. 주로 식사를 할 때나 약 먹는 시간 등을 이용해 찍는다. 때로는 사진 찍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또 다른 행복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 자신이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있음을 본다.

분만 중인 산모를 찍은 사진이 인상적이다. 사진 속 산모의 고통이 마치 이탈리아 조각가 베르니니의 'The Ecstasy of St. Teresa' 처럼 희열로 보인다.

산모를 찍은 'Accouchement' (1988)는 아직 한번도 전시되지 않은 작품이다. 당연히 분만의 고통과 진통이 기쁨과 희열로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사진 이미지가 가진 해석의 모호함은 흥미롭다. 그러나 제목에서 눈치 챌 수 있는 것처럼 사진은 분만 중인 상황을 찍은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출산은 하나의 격렬한 전쟁터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이다.

'Faces' 작업은 모두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으며 정사각형 포맷이다. 특별한 작가적 고민에 의한 것인가?

노인과 신생아 작업에서는 그들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주변 상황은 생략하고 얼굴만 보이게 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얼굴만 보이면서 마치 그들이 두 발로 서서 사진에 찍힌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얼굴을 표현하는데서 정사각형 구도는 매우 중요하다. 정사각형 구도에서는 두 눈처럼 감상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고정된 두 점의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다. 이것은 직사각형의 한 포인트와 사뭇



Nos. 37 photographies, 45×45cm, 1998~1999





Faces(nourissons), 16 photographies, 27x27cm, 1988





Les Bourgeois de Calais. 6 photographies. 45x45cm, 1994

다른 이미지 감상을 준다. 또한 클로즈업으로 얼굴만을 집중적으로 표현해 피부의 질감 등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조각상에 가까운 느낌을 살렸다. 한편 'Faces'는 모두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는 작업들이다. 다양한 대상을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시키기 위해 하나의 포맷으로서 정사각형 구도를 유지하며 더욱 강렬한 시각적 느낌을 표현했다. 반면 이후의 공간 사진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구도를 시도했다.

흑백 필름으로 촬영한 얼굴들은 피부의 질감이 더욱 거칠게 표현되어 조각상처럼 느껴진다. 특히 신생아들을 찍은 사진은 그들의 얼굴에 묻은 분비물로 인해 당신이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상을 찍은 사진인 'Les Bourgeoise du Calais'(칼레의 시민)의 얼굴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처음 병실의 노인들을 찍을 때부터 흑백 필름을 사용했다. 차가운 병실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싫어서였다. 고감도의 흑백 필름은 상업 화장품 광고에서 보이는 도자기 같은 매끈한 비현실적 피부가 아닌, 꾸미지 않은 있는 피부 그대로의 질감을 더욱 잘 표현한다. 컬러 필름으로도 여러 번 인물을 클로즈업해 찍어 봤지만 그때마다 결과물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회화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다. 나는 대상을 회화적이기보다는 조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얼굴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재감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다. 또한 소외된 계층인 그들의 현존함을 꾸미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싶다. 로댕의 '칼레의 시민' 상을 하나씩 따로 촬영해서 보면 오랜 세월 외부의 영향으로 마모된 브론즈 상의 느낌이



John Brown's body, USA, 2011 - 2011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 보인다. 이 또한 사진이 가진 일루션이 아닐까? 조각상뿐 아니라 피카소의 데생에서도 똑같은 얼굴을 발견할 수 있고, 피카소 작품 속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비슷한 일루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Faces'의 얼굴은 전통적 의미의 포트레이트가 아니다. 의학 조사 및 기록용 아카이브 사진은 더욱 아니다. 죽음을 애도하며 추억을 기념하기 위한 직업도 아닌 것 같다. 당신의 직업은 삶을 체험한 시간, 또는 이 사회의 포트레이트처럼 보인다. 그렇다. 비평가 베르나르 라마르슈-바델(Bernard Laaprche-Vadel)이 처음 내 사진을 보고 "당연히 이 작품은 포트레이트가 아니고, 나체와 같다"고 표현했다. 그의 표현대로 이 얼굴은 '벗은 몸이 아니고, 벗겨진 얼굴'이며 '있는 그대로의 날것'과 같은 얼굴이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

상과 사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새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작업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잊혀짐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죽음에 대해 연민을 갖는 것과는 다른 현실의 기록이지 않으므로 다가올 사회를 위한 작은 움직임처럼 변화되었다. 되풀이되는 우리 삶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복지 시설과 공간의 취약함을 고발하는 정치적인 기록이면서 사회를 향한 외침이다. 오늘날의 모습이 30년 전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 미래를 향해 셔터를 누르는 것은 좋은 사진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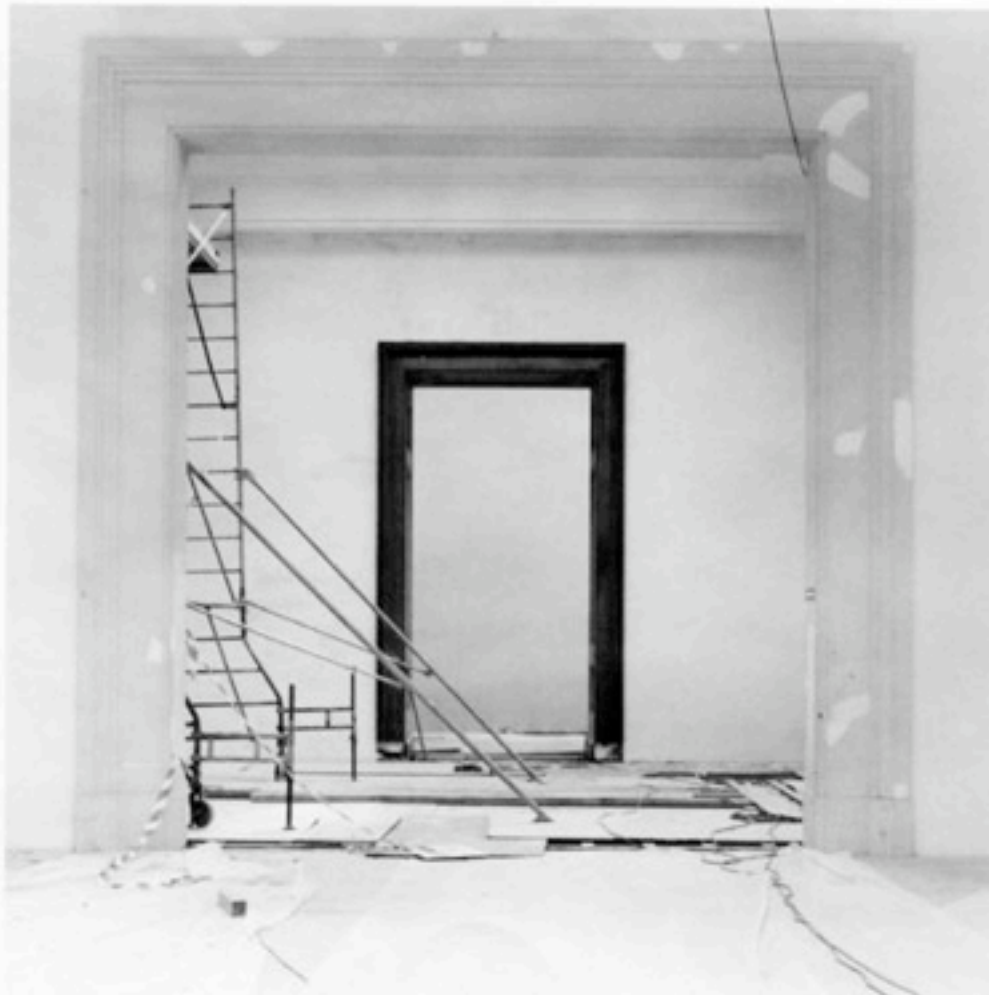
**오랫동안 얼굴 작업을 해오다 최근에는 공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Faces' 작업에서는 공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축척과 같은 시간적 개념이 존재하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 공간 작업은 'Anatomies'(1993~2000) 시리즈이다. 미술관과 아트센터 등 문화공간의 리노베이션 공사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공간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카메라의 장노출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다. 시간과 함께 소멸되거나 희미해진 것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마치 어느 얼굴사진처럼 우리 사회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장소들이다.

최근작 중 'Un camp afghan'(2009)은 파리에 망명했던 한 아프가니스탄인이 암살된 사건 이후 그가 숨쉬고 살았던 장소들을 찾아 작업했다. 그가 잠을 잤던 파리의 거리, 빈민구제용 급식을 받았던 묘지 앞,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의 집회장소, 암살당했던 공원 등 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사회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단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또 다른 작품인 'John Brown's Body'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 미국에 가서 작업했다. 19세기 미국의 흑인 노예 폐지론자였던 존 브라운은 그를 기리는 '존 브라운의 시신은 무덤에 잠들고'라는 노래로도 유명하다. 나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인 인종차별주의와 노예폐지론, 테러리즘, 신노예주의, 전쟁과 난민 등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내게 사진은 예술적인 면뿐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매체로 여겨진다.

**비디오 작업도 병행 중이다. 사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 비디오 작업은 스코틀랜드의 더프튼(Dufftown)에 있는 한 개인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촬영했다. 이 비디오는 60분 분량으로, 직원들은 근무시간 동안 한 사람씩 내 카메라 앞에 서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내 카



Anatomies, Lille, 1996



Anatomies, Calais, 1999



Lin camp afgan, 2009



메라를 응시했다. 이처럼 비디오 작업은 나에게 사진의 연장선이다. 큰 변화가 없는 거의 정지된 비디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끊임없이 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드라마틱한 사건 혹은 시선을 잡아끄는 내용을 기다리는 관객은 내 비디오 앞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할 듯하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미지를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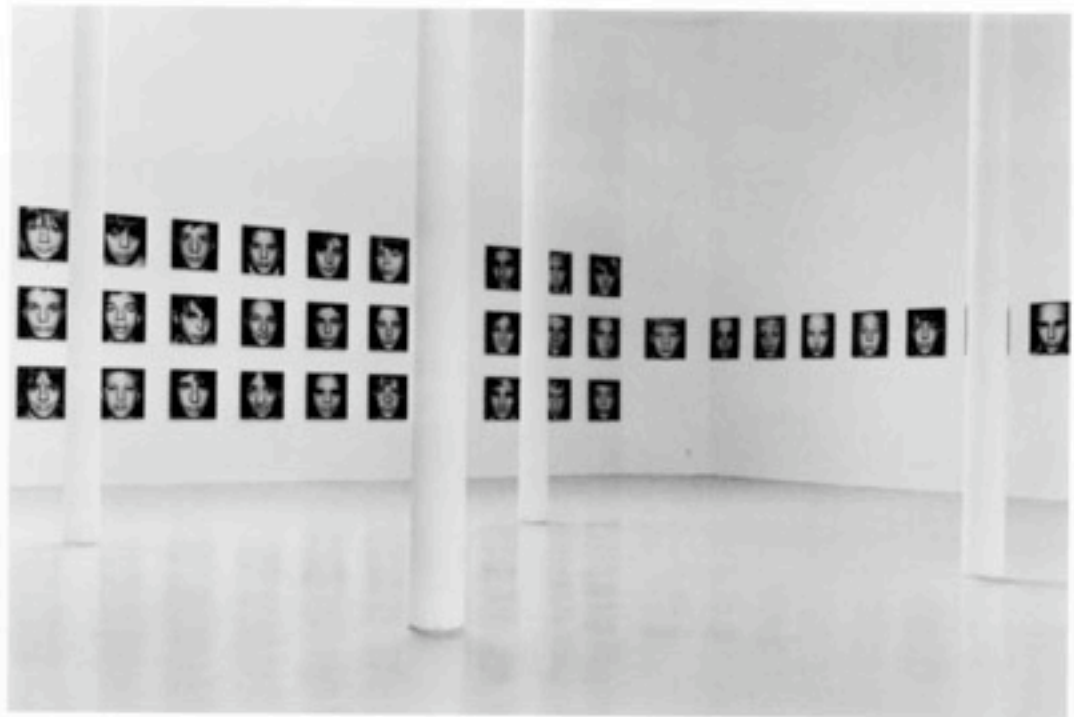
**스승 또는 선배로서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

작가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인 듯하다. 이것은 계속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좋은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 후에 이미지들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 중에는 어떤 의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것, 자기만의 주제로 작업해야 한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프랑스 사진의 특징과 흐름을 듣고 싶다.**

프랑스 사진은 크게 포토저널리즘, 브레송과 드와노 등의 휴머니스트 사진, 초현실주의(Surrealism) 세 가지



Galerie de l'ancienne poste, Calais adolescents, 1995

영역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퐁파두 센터에서 열린 초현실주의 사진과 영상 특별전처럼 미술관과 사진계에서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만 사진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반면 프랑스의 현대사진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가려는 것이 특징이다. 많은 젊은 작가들은 다양한 주제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향후 작업 계획이 궁금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Des hommes en colère'라는 제목이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파업'(Strike)에 나오는 노동자들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크리스티안 볼레르의 텍스트 몽타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노동 현장의 폭력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오는 9월, 파리에 있는 Aprion Meyer Contemporain 갤러리에서 'John Brown's Body' 시리즈 중 존 브라운 추모 150주기 기념식에 참가한 사람들을 찍은 사진을 개인전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MP

글 | 성지연(객원기자(프랑스), 디자인 | 박정범(기자)

## Philippe Bazin

All images © Philippe Bazin  
courtesy Aprion Meyer Contemporain Gallery, Paris  
[www.philippebazin.fr](http://www.philippebazin.fr)

**1954** Born in Nantes(France)  
Lives and work in Paris  
Teacher at Ecole Supérieure d'Art et de Design de Valenciennes (France) Niepce Prize 1999(France)

### Solo Exhibition

**2010** Circulations, la radicalisation du monde(Fine Art Museum of Calais, France)  
**2009** La Radicalisation du monde(Fine Art Museum Abbaye Sainte-Croix, Les Sables d'Olonne, France)  
**2008** Noe(Michel Journiac Gallery, Paris I University, La Sorbonne, Paris, France)  
**2006** Une partie de la campagne(Art Center of Yonne, Tanlay, Bourgogne, France)  
**2005** Porto 2001(Camoes Institute, Paris, France)  
**2002** Culturgest(Paris, Portugal)  
Femmes Militantes des Balkans(Gallery of The Academy of Arts, Sarajevo)

### Group Exhibition

**2011** Investigations of a dog(Fondation Deste, Athens, Greece and Magasin 3, Stockholm Konsthall, Sweden)  
**2010** Investigations of a dog(La Maison Rouge, Paris, France and Fondation Ellipse, Cascais, Portugal)  
**2009** Investigations of a dog(Fondazione Sandretto, Turin, Italy)  
Dans l'œil du critique. Bernard Laapriche-Vadel et les artistes(Museum of Modern Art of Paris, France)  
**2008** A la croisée de l'art et de la médecine(Gallery of the University of the city, and Foreman Gallery of Bishop's University, Sherbrooke, Canada)  
**2007** Portraits de l'autre(Ixelles Museum, Bruxelles, Belgium)  
**2005** The Seal(Royal Scottish Academy, Edimbourg, Scotland)  
**2004** About face(Hayward Gallery, London, UK)  
Je l'envisage(Elysee Museum, Lausanne, Switzerland)  
**2002/2003** Presencia/Ausencia(Library Luis Angel Arango, Bogota, Colombia)  
**2000** Voici, curator Thierry de Duve(Museum of Modern Arts, Bruxelles, Belgium)